

여의도순복음김포교회 5월 17일 주일예배 설교입니다.

<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

로마서 8:28-30 / 새찬송가 315 (통일 512)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1. 인생에서의 모든 시간이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 무엇의 계기가 되는 때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배후와 계기가 되는 시간과 때를 주장하십니다(전3:1-4). 이 시간과 때를 ‘시기’ 또는 ‘기회’라고도 하는데 이 시기와 기회는 하나님만 아시고 주장하십니다. 시기와 기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를 ‘우연’이라 말합니다(전9:11).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께서 시기와 우연을 잘 타도록 해주셔야 받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로 간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고 마침 그곳에 있던 보아스를 만나 다윗의 조상이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런 시기와 우연의 복은 물론이요 화를 면하는 복도 받게 됩니다(전9:12).

사람은 사건의 배후가 되는 시기와 우연을 보지 못하고 사건 그 자체만을 보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이 조급함이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나 지금 일어난 사건이 진짜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나중에 가 봐야 합니다. 즉 그 사건 뒤에 있는 시기와 우연이 사건보다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전7:14).

그러므로 우리는 당장 일어난 일만 보는 조급한 마음이 아니라 그 일의 뒤에 있는 시기와 우연을 바라보는 넉넉한 마음을 지니고 그 시기와 우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해야 합니다(롬8:28).

2.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받는 복은 하나님의 ‘창조의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모든 시기와 우연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창조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뭔가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온 세상과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우리가 예측하거나 상상하는 것 이상의 기적을 창조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 즉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롬4:17).

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받는 복은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의 복입니다. 기

적같은 죄 사함, 기적같은 용서, 기적같은 의롭다 하심, 기적같은 치료, 기적같은 문제해결이 그렇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되게 하셨습니다(롬8:29). 더불어 기적같은 부활과 기적같은 천국도 주셨습니다(롬8:30),.

이런 기적의 복을 받으려면 내가 기쁘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안타깝게도 칭함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 받은 자는 적습니다(마22:14).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칭함 받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믿는 사람은 택함 받은 사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믿는 사람은 그 삶이 허무로 돌아가지 않고 기적 같은 의롭다 하심과 영화로움을 얻게 됩니다.

< 적용 & 실천 >

우리는 우리의 지금 형편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어떤 일이라도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뜻을 이루는 재료로 쓰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